

더연합타임즈  
모바일 보기메디슨그룹  
Medison Group

www.medisongroup.co.kr

World EXPO 2030  
BUSAN, KOREA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시울코리아 가 함께 응원합니다.

제1381호 (2023년 11월 6일 월요일)

대표전화 : 1533-1545

# 인요한, 이준석과 대화 불발…李, 영어로 “진짜 환자 서울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4일 오후 부산 경성대학교에서 열린 이준석 전 대표, 이언주 전 의원이 진행하는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있다. 이날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1시간 30분기량 진행된 토크콘서트를 지켜보고 자리를 떠났다. 이 전 대표와 별도의 대화는 없었다. 이 전대표는 인 위원장에게 영어로 응대하며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4일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해 부산을 찾았지만 대화는 불발됐다.

인 위원장은 이날 부산 경성대 중앙도서관에서 이 전 대표가 이언주 전 의원과 함께 진행한 토크콘서트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에 참석했다.

사전에 조율하지 않은 방문이었고, 인 위원장은 이 전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고

싫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행사 내내 인 위원장을 향해 우리말이 아닌 영어로 응대하며 거리를 뒀다. 인 위원장은 ‘특별 귀화 1호자’로 한국 국적을 지니고 있다. 인 위원장은 행사가 끝나자마자 이 전 대표와 인사도 나누지 않은 채 곧장 상경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의사이기도 한 인 위원장의 면전에서 “여기서 내가 환자인가.

오늘 이 자리에 의사로 왔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곧장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 가서 그와 이야기하라. 그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개 행사에서 일종의 수사적 질문을 던진 셈인데, 객석에 있던 인 위원장은 웃으며 “경청하러 왔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행사 후 취재진이 ‘진짜 환자’가 누구인지를 묻자 “좀 더 특정하자

부산 토크콘서트 깜짝 방문에 이준석, ‘Mr Linton’ 칭하며 싸늘한 거리두기  
인요한, 행사후 곧장 상경…“오늘은 경청, 생각 정리해 서울서 이야기”

면, 인 위원장이 당에 쓴 약을 먹이겠다고 했는데 강서 선거에서 민심이 당이 싫어서 투표를 안 했다고 진단하면 오진”이라고 답했다. 직접적으로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인 위원장을 향한 이 전 대표의 태도는 처음부터 냉랭했다. 인사말 시작부터 그를 ‘Mr. Linton’으로 불렀다. 인 위원장의 영어 이름은 존 올더먼 린튼이다.

이 전 대표는 이후에도 “이제 당신은 우리의 일원이 됐고. 우리의 민주주의에 더욱더 관심을 기울인다고 본다. 당신이 젊은 날 지키고자 노력했던 그 민주주의 말이다”라며 영어로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언젠가 반드시 당신과 내가 공통된 의견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그러나 당신은 오늘 이 자리에 올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했다.

그는 “강서 선거에서 무엇을 배웠나. 강

같다”며 큰 소리로 웃었다.

인 위원장은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이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의지가 강해 보인다”고 묻자 “오늘은 들으러 왔다. 생각을 정리해 서울에서 이야기할 생각”이라 고만 말한 뒤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자신에게 냉랭한 태도를 보이며 여권에 대한 거센 비판을 이어가는 이 전 대표와 이날은 더 이상의 대화가 어렵다고 판단하고서 대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신당 창당을 시사해온 이 전 대표는 이날도 국민의힘을 두고 “고쳐 쓸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 같다”며 “이제 엎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그는 “개혁보다 혁명이 쉽다”며 인 위원장을 향해 “혁명의 일부가 되시라(be part of it)”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 송진영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 콜센터 여전히 ‘폭주’…1인당 연 1만건 처리

상담 건수 급격히 늘자 지난해 21명→94명으로 확대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콜센터 상담원 한 사람의 연간 1만건 넘는 상담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UG 콜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처음 문의하게 되는 곳으로, 연결이 잘 안된다는 불만에 상담 인력을 대폭 늘렸지만, 여전히 상담원 1인당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HUG 콜센터 상담사는 지난해 1~10월 1인당 평균 1만8천680건의 상담 전화를 받았다. 2020년 1만4천771건, 2021년 1만5천452건에서 2년 새 26% 증가했다.

HUG 콜센터 상담 인원은 작년까지 16명이었지만, 1인당 상담

건수가 급격히 늘자 올해 21명으로 확대했다.

이후 전세사기 확산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운용하는 HUG에 상담 전화가 폭주하면서 작년 10월 말부터는 민간 위탁 상담원 73명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총 94명의 상담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상담 인력 추가 이후 올해 1~7월 1인당 평균 상담 처리 건수는 6천533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이런 추세대로라면 연간 상담 건수가 1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상담 전화 연결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한다며 불편함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맹성규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업무는 국민 주거 안정의 최후의 보루로서 공적 책임과 신뢰성이 높아야 한다”며 “업무 과중을 해결함과 동시에 민간 위탁 상담 단계에서부터 보증 업무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조규혁 기자

## 이선균 “유흥주점 여실장에게 속았다…마약인 줄 몰랐다”

배우 이선균(48)씨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낸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속아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씨는 전날 오후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서 받은 2차 소환 조사에서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에게 속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그러면서 “A씨가 나를 속이고 무언가를 쌤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이 같은 주장은 마약 투약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전면 부인하는 진술이다. 앞서 그는 전날 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취재진에 “여러 가지 질문에 성의 있게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다”면서도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이씨 등 유명인들과 친분을 쌓았다. 이 유



이 불거지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천만원을 뜯겼다”며 변호인을 통해 A씨와 성명 미상의 인물 B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나와 이 씨의 관계를 의심한 B씨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협박한 인물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최근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달 28일 1차 소환 조사 때 압수한 이씨의 휴대 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마약과 관련한 의미 있는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속았다”는 이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 전날 2차 조사에서 확보한 이씨의 다른 진술을 토대로 보강 수사를 한 뒤 조만간 3차 출석 요구를 할 예정이다.

/ 황윤지 기자

**Galaxy Watch6  
Classic Golf Edition**

자세한 내용은  
상상의한에서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시울코리아 가 함께 응원합니다.

※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위해 연출된 화면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정부, 태국과 체류·입국 문제 논의…韓입국심사 불만여론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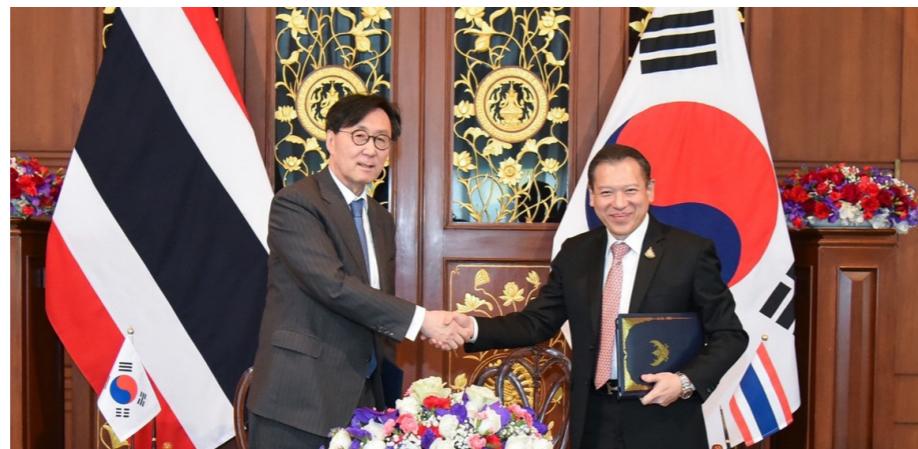
## 제4차 ‘한-태국 정책협의회’ 개최…영사국장회의도 조만간 열려

한국과 태국이 조만간 영사국장회의를 열어 태국 국민의 한국 내 체류 및 입국 관련 문제를 논의한다.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은 지난 3일 태국 방콕에서 사란 차련수완 외교부 사무차관과 ‘제4차 한-태국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정했다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

양측은 이와 함께 회의에서 마야 대응 및 치안 분야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태국 네티즌 사이에서는 부당하게 한국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간간한 심사를 받았다는 경험을 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이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태국인을 부당 대우한다는 반감이 커져 ‘한국 여행 금지’라는 해시태그(#)가 태국 엑스(X·엣 트위터) 트렌드 1위에 올랐으며, 지난 1일에는 세타 타워신 태국 종리까지 나서 이 문제를 자국 외교부 차



지난 3일 태국 방콕에서 ‘제4차 한-태국 정책협의회’를 개최한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왼쪽)과 사란 차련수완 외교부 사무차관

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장 차관은 이와 함께 양국 인적 교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한국 국민의 안전한 태국 여행 및 체류를 위한 태국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장 차관은 아울러 한국 정부가 북한의

진정성 있는 협상 복귀와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달성하려면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태국 측의 지속적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사란 차관은 태국이 ‘메가 프로젝트’로 준비 중인 육상운송로 등 인프라 분야에 한국 기업의 투자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으며, 장 차관은 태국 철도 프로젝트와 관련한 한국 기업의 원활한 활동과 수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양 차관은 이밖에 ‘한-태국 경제동반자 협정’ 개시 준비와 스타트업·전기차·우주 산업·원자력 에너지 분야 협력 증진 방안도 논의했다. 한국 국립외교원과 태국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업무협약(MOU)도 이 자리에서 체결됐다. 양측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정책협의회’를 ‘전략 대회’로 격상시키는 데도 합의했다.

한편, 장 차관은 같은 날 오전 찾차이 방주와 태국 국가안보위원회(NSC) 사무총장대행과 면담하고 사이버 안보, 마야 대응, 북한 문제 등 안보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최성규 기자

## 尹대통령 국빈 초청 英 찰스3세, ‘뉴몰든’ 한인타운 첫 방문한다

영국 찰스 3세 국왕이 처음으로 한인타운 ‘뉴몰든’을 방문한다.

영국 왕실은 8일(현지시간) 찰스 3세 국왕이 뉴몰든의 코리아 커뮤니티 멤버들을 만난다고 3일 웹사이트에 밝혔다.

런던 킹스턴구 뉴몰든은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유럽 최대 한인타운이다.

찰스 3세 국왕이 작년 9월 즉위 후 뉴몰든을 공식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국왕은 1992년 11월 왕세자 시절에 한차례 한국을 다녀간 적이 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포함해서 영국의 왕실 고위 인사가 뉴몰든을 방문하는 것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문은 올해 한영 수교 140주년과



영국 찰스 3세 국왕

이달 윤석열 대통령 내외 국빈 초청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국빈 방문을 앞두고 영국 내

한국 커뮤니티와 만나서 소통하는 기회를 갖고, 한영 관계에 관한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 영국에 정착해서 지역사회 일원으로 기여하는 한인들을 격려하려는 취지도 담긴 것으로 짐작된다.

뉴몰든은 런던 서남부 외곽 지역으로, 한국 식당·대형마트, 슈퍼·카페·미용실, 학원 등이 주로 상권을 이루고 있다.

1970~80년대 주재원, 유학생, 교민 등이 모여 살기 시작하며 공동체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 노승만 기자

## 첫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우리 소상공인, 더 오래 걸을 힘

우리 청년, 더 어깨 펼 힘

우리 중소기업, 더 날개 돋칠 힘

우리가 힘을 모을수록

우리의 힘은 강해질 테니까

## 우리 모두에 우리의 힘을

|우리은행 대국민 상생금융 프로젝트|

우리은행



사진=남현희 인스타그램

## 남현희 측 “전청조에게 받은 ‘벤틀리’ 경찰에 제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가 결혼 상대였던 전청조(27·구속)씨에게 받은 벤틀리 차량을 경찰에 제출했다.

남씨의 범죄 대리인은 4일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전씨에게 ‘깜짝 선물’로 받은 벤틀리 차량을 전날 경찰에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경찰이 남 감독 요청을 받아들여 압수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방, 목걸이, 반지, 시계 등 전씨로부터 선물 받은 모든 귀금속류 역시 임의제출을 통해 압수됐다”며 “차량과 귀금속류 일체에 대한 ‘소유권 포기서’도 함께 경찰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앞으로도 사죄하는 마음으로 수사기관의 모든 요구에 따르며 절차에 적극 응할 것”이라며 “전씨를 만나기 전부터 계속 사용 중인 유일한 휴대전화 역시 경찰이 원하면 언제든 임의제출 형식으로 경찰에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씨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15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9억원이 넘는 돈

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전날 구속됐다.

남씨는 지난달 월간지 여성조선과 인터뷰를 통해 전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터뷰 공개 직후 전씨의 성별 의혹과 사기 전과, 재벌 3세 사칭 의혹 등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이후 전씨가 최근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돈을 받아 가로챘다는 고소·고발이 잇달아 접수됐다.

남씨가 전씨 범행을 공모 또는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남씨는 사기 행각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남씨는 지난 2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전씨에게 누구보다 철저히 이용당했고 마지막 탓이 되기 직전 전씨의 사기 행각이 들통난 것”이라며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어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 강희찬 기자

## “21대 국회 회기내 개 식용 금지법 제정해야” 서울 도심 집회



약속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이 2021년 7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현재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동물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법안 통과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주최 측에 보낸 동영상에서 “개 식용 종식 문제는 동물이 아닌 우리 인간을 위한 일”이라며 “개 식용 종식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층 더 부합하게 될 것이고 이는 우리 국격을 높여 문화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도 “최근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반려동물 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다시는 동물 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식 개선과 제대로 된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개 식용 금지를 추진하고 있고 민주당 역시 개 식용 금지 문제를 회기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7개 부처 차관급 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다.

/ 박정민 기자

## 연세대 윤동섭 신임 총장 ‘논문 3편 중복 게재’ 논란

### 정교수 승진 때 연구성과로 제출…교내 연구윤리기구서 조사

연세대학교 신임 총장으로 선임된 윤동섭(62)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교수 가 논문 중복 게재로 연구윤리를 위반 했다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4일 연세대 등에 따르면 교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최근 윤 교수의 논문 중복 게재와 관련한 본조사에 착수했다.

윤 교수는 2004년 논문 2편, 2006년에 논문 1편을 국내 저널에 게재했다. 이후 이 세 논문의 영문판을 2007년 해외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학술지에 중복해 올렸다.

윤 교수는 정교수로 승진하던 2007



년 연세대 교원 인사관리 내규에 따르면 임상의학 계열인 윤 교수가 정교수로 승진하려면 주저자로 SCI 논문 3편 발표 또는 주저자 연구가치평가점수(IF) 합계 9.0 이상이 필수 연구업적 요건이었다.

윤 교수는 당시 연구업적을 학교에 제출하며 문제의 영문 논문 3편을 포함했다.

연세대 교무처는 최근 학내 교수평의회에 발송한 공문에서 ‘해당 국제논문을 제외하면 승진을 위한 필수 연구업적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논문 저자 표시와 데이터 처리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교수는 최근 해당 한글 논문 3편 을 철회했다.

/ 김관우 기자

## 尹대통령, 사퇴한 與당직자들과 만찬...“총선 열심히 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1기 제체 지도부에서 활동하다 사퇴한 임명직 당직자들과 비공개 만찬을 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오후 6시30분께부터 2시간 40분 가량 진행된 만찬에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해 1기 지도부에서 사퇴한 박대출 전 정책위의장, 이철규 전 사무총장, 강대식 전 최고위원, 박성민 전 전략기획부총장, 배현진 전 조직부총장, 박수영 전 여의도연구원장, 유상범 전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참석 대상 중 강민국 전 수석대변인만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찬은 윤 대통령이 1기 지도부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앞줄 오른쪽부터),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성원, 이철규 의원 등이 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자리하고 있다.

며, 참석자들은 맥주를 들여 저녁 식사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기현 1기 지도부의 임명직 당직

자들은 지난달 14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임명직 당직자들이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고 노고를 위로하면서 “총선에서 정말 열심히 해달라”고 격려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했다.

이날 오후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당 지도부와 영남권 중진 의원,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을 지목해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출마를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 만큼, 이날 만찬 자리에서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오갔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다만 참석자들은 통화에서 “인 위원장이나 혁신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 송유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이재명 “대장동 일당과 결탁해 제가 얻을 이익이 뭔가”

법원, ‘위증교사 혐의’ 병합  
여부에 “기일 따로 열어 결정”

수기로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장으로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범행했다는 검찰의 주장에도 “잘못된 추론으로, 공약은 사업 지분을 확보하려 했던 것”이라며 “공약을 포기해서 굳이 이 행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성남시의회가 위례신도시 개발에 반대하자 곁으로는 포기를 선언하고 성남시설 관리공단(성남도시개발공사 전신) 안에 비밀리에 ‘기술지원TF’를 꾸려 사업을 추진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조직된 것으로 비밀 조직이라는 언급은 실제랑 다르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7일과 20일 공판에서도 각각 30분가량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발언권을 얻어 직접 반박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과 검찰이 증거 조사 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 권도훈 기자

## 국방부 정훈국 15년만에 부활…장병 교재에 ‘북=명백한 적’ 명시

### 정신교육 담당 조직 확대 개편…정신교육 교재에 ‘北위협·도발사례’ 보강

장병 정신전력을 담당하던 국방부 ‘정훈국’(가칭 정신전력기획관실)이 15년 만에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3일 언론에 배포한 ‘국방 주요 정책 및 현안’ 자료를 통해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정신교육을 담당하는 조직을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1단계로 국방부 내 ‘정신전력문화정책과’를 ‘정신전력과’로 명칭을 바꾸고, 과장보직도 공무원에서 현역 대령으로 변경한다. 2단계로 정훈국을 다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훈국은 1948년 국군조직법에 따라

처음 설치돼, 1992년까지 정신전력과, 정훈과, 문화보훈과 등 3개 과를 두고 있었다. 이후 교육정훈관실, 정훈기획관실 등으로 명칭이 변경됐다가 2008년 정신전력과로 축소된 바 있다.

이달 초 취임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장병 정신전력 강화를 강조함에 따라 정훈국 부활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정신전력과 언론대응 등을 담당하는 병과의 명칭을 ‘공보정훈’(公報正訓)에서 ‘정훈’(精訓)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훈 병과의 명칭은 문재인 정부 때 공보정훈으로 변경됐는데 이를 정훈으로

환원하면서 ‘정’의 한자를 과거 ‘정사 정(政)’에서 ‘정할 정(精)’으로 바꿨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들의 ‘정신’(精神)을 강조한다는 의미를 담아 ‘정할 정’을 쓰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병 정신전력교육의 기본교재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기본교재를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 등 3개 영역, 총 9개 과로 편성하고 명확한 대적관 학습법을 위해 북한의 위협과 실상을 집중해서 보강한다. 아울러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명백한 적’이라고 명시하고, 6·25전쟁,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매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등 도발 사례를 확대 반영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새로운 기본교재를 중대급 이상 부대와 학교기관에 배포하고, 지휘관과 정훈장교의 교육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방정신전력원의 중대장 및 정훈장교 대상 교관 전문화 과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서는 “상시 핵실험 가능 상태를 유지하면서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하며, 신형 잠수함 진수 등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매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정찰위성에 대해서는 “10월 내 재발사 예고 시한을 넘긴 가운데 러시아가 북한의 위성개발 조력을 공연한 만큼, 3차 재발사 성공을 위한 노력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다. / 정용성 기자

## 선관위원장 “총선서 허위정보 강력 대응…국민 신뢰 회복해야”

### 전국 시도선관위원장 회의서 “정확한 투·개표 관리” 당부

사 표현과 자유로운 선거 참여는 보장하되 위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위원장은 “허위 사실 표기와 비방 등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 조치할 것”이라며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대 여론조사법죄를 절저히 조사해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투명한 선거 관리, 정확한 투·개표 관리, 조직 혁신 노력 등도 주문했다.

노 위원장은 “22대 국회의원 선기는 선관위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조직 혁신과 선거 관리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국민들에게 보일 기회”라며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선관위 모든 구성원이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정수 기자

## 민주 “與 혁신위,尹대통령 국정기조 전환 요구해야”

### 정부·여당 ‘R&D 예산 증액’ 움직임에 “졸속 삭감 입증한 것”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에 대해 ‘혁신의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고 곁다리만 계속 두드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대통령과 당 대표 일에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등 민심의 요구를 모르는 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혁신위를 출범시킨 배경은 윤 대통령의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국민이 냉엄하게 심판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혁신위는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의 전환을 요구하고, 혁신의 본질적 목표를 수직적 당정 관계의 해소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호 혁신안도 황당하기는 마찬가

스스로 벌고 있다”고 비난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인요한 혁신위는 왜 혁신위가 출범했는지 되짚어 보라”며 “대통령에게 제대로 말 한마디도 못 할 혁신위라면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권 수석대변인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깎은 R&D(연구·개발) 예산을 증액하려는 정부·여당의 움직임을 두고 “R&D 예산 삭감이 마구잡이식 ‘졸속’으로 추진된 것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R&D 카르텔” 운운하며 5조원을 날린 윤 대통령이 갑자기 ‘재임 기간 R&D 예산을 크게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계와 국민의 반발을 덮으려는 진정성 없는 임시abinet용이 아니라는 의혹이 크다”고 지적했다. / 백정민 기자



의원 발언 경청하는 노태악 위원장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3일 전국 17개 시도선관위원장에게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생성형 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허위 정보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 선관위에서 총선 관리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시도선관위원장 회의를 열고 “국민의 정치적 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

지”라면서 “제다가 ‘지도부와 중진·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의 불출마나 수도권 출마’ 요구는 혁신위의 결사항이 아닌 개인의 권리와 사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수용 여부도 불투명하고 기껏해야 또 다른 ‘친윤 낙하산’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대국민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마치 대단한 신설책인 양 호들갑을 떨며 국민의 매를

**이론케  
세상에  
이롭게**

롯데케미칼 롯데알미늄

롯데 화학 기족은 시름과 자연이 조화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Every Step for GREEN

PROJECT LOOP

CO

생활에 이로운 제품을 만드는  
플라스틱 자원循環으로  
세상을 더 가치있게

#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노면에도 표시…“운전자 쉽게 인지”

## 경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전국 11곳서 시행 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만 제한속도를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구역에 노면 표시가 새로 도입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런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전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으며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에 '시간제 속도제한 노면표시'를 신설하고, 이를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구간의 기점과 구간 내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속도 규제를 합리화하는 동시에 안전을 위한 보완 장치로서 노면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며 “이미 안전표지와 가변형 속도 표시 전광판 등을 설치하게 돼 있지만, 노면에도 표시하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표지판

면 운전자들이 더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스쿨존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제도다.

기존에 안개, 강우량 등 기상 조건에 따라 속도 규제가 달라지는 가변형 속도제한이 일부 도로에서 운영됐으나 시간대에 따라 속도제한을 달리 두는 방식은 스쿨

존에 처음 도입됐다.

구체적으로 종일 시속 30km로 제한된 스쿨존은 심야시간대(오후 9시~익일 오전 7시) 시속 40~50km로 상향하고, 기본 제한속도가 시속 40~50km인 스쿨존은 등하고 시간대(오전 7~9시·낮 12시~오후 4시) 시속 30km로 하향할 수 있다. 세 부적인 속도제한 조정 시간대는 지역 실

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한다.

단, 속도 상향은 안전을 위해 ▲ 편도 2차로 이상의 간선도로 ▲ 보도·차도 분리 여부 ▲ 보행자 신호기 설치 ▲ 낮은 어린이 교통사고 빈도 등 여러 필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년간 시범 운영에 이어 올해 9월 정식 시행된 후 전국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하는 곳은 현재 총 11개소다.

서울 광운초, 대구 신암초, 인천 부원·미산초와 부일·부내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천 증포초·강원 춘천 봉의초, 강원 강릉 남강초 총 9곳은 심야에 속도를 높였으며 부산 구평초와 인천 동춘초는 등하고 시간대 속도를 낮췄다.

경찰은 추후 30여곳까지 시간제 속도 제한 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지자체 예산 확보, 주민·학교 의견 수렴 등의 사전 절차가 필요해 지역별로 시행 여부와 시기는 유동적이다.

/ 최원철 기자



## 출소 약 한 달 만에 술 취해

### “공무원 죽이겠다” 협박한 50대

민원 상담 직원에게 “여성 공무원들을 살해하겠다”고 말하고 112에도 살해 예고 전화를 해 공권력 낭비를 초래한 50대가 또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홍천군집에서 전화로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상담

직원에게 “군청 여자들부터 이제 죽여버릴 것 같아요”, “나중에 사건 터질 때 지켜봅시다”라고 이야기했다.

국민권익위와의 통화 전후로 112에다가도 네 차례 전화를 걸어 “술을 마셨는데 또라이가 된 것 같다”,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출동 경찰관 10여명에 의해 불잡힌 A씨는 결국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생계지원금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신을 할 것처럼 군청을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같이 범행했다.

송 부장판사는 “누범기간 중 허위 112 신고로 경찰 공무원들을 출동하게 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공권력을 낭비되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노건우 기자

## ‘사기혐의’ 전청조 구속…“주거 일정하지 않고 도망 우려”

### 전청조 변호인 “범행 모두 인정…피해자분들께 죄송”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27)씨가 3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고 주거가 일정치 않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사기 범행 피해자 수는 15명, 피해 규모는 19억원을 넘는다. 수사 경과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전씨에 대한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김포 전씨의 친척 집에서 전씨를 체포해 전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심사 받는 ‘사기 혐의’ 전청조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후 1시35분께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전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푸 숙인 채 “남씨가 범죄 행위를 물렀나”, “억울한 점 있느냐”, “밀함을 계획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약 1시간의 심사를 마치고 법정에서 나와서도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대신 전씨 측 변호인은 영장심사 전 송파서 앞에서 기자들에게 “(전씨가) 본인의 사기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은 없다”며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하고 있다”는 입장

남씨와의 공모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남씨가 대질 조사 등을 요청했는데 전씨 역시 대질신문 등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면서 (입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씨가 체포 직전 밀항을 계획했다는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억측”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남씨 조카 폭행 등 전씨에 대해 제기된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입장장을 밝히기 어렵지만 전씨가 자신에게 쓰워진 혐의에 대해 모두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현재 전씨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지난달 월간지 여성조선과 인터뷰를 통해 전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 고 밝혔다. 전씨는 재벌 3세이자 부상으

로 은퇴한 승마 선수, 청년 사업가 등으로 소개됐다.

그러나 인터뷰 공개 직후 전씨의 성별 의혹과 사기 전과, 재벌 3세 사칭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했다. 이후 전씨가 최근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돈을 받아 가로챘다는 고소·고발이 경찰에 잇달아 접수됐다. 남씨가 전씨 범행을 공모 또는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남씨는 사기 행각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남씨는 전날 범률 대리인을 통해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어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입장장을 전했다.

/ 송진영 기자



전청조

## “내가 운전했어” 남편 대신 음주 측정

### 30대 아내 벌금 500만원

#### 법원 “단속 현장서 우발적으로 허위 진술한 점 등 양형에 고려”

남편의 음주운전 범행을 덮어주고자 자신이 한 것처럼 허위 진술해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30대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2시께 사실혼 배우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남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원주의 목적

지에 도착한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 경찰에 “내가 운전했다”며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로 A씨는 남편을 대신해 음주 측정을 한 데 이어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정작 음주운전을 한 남편의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박 부장판사는 “사실혼 배우자의 음주운전 범행을 덮어 주기 위해 허위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단속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점 등

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황순길 기자

# aT 가 함께 합니다

지속 가능한 우리 농어업!  
잘사는 우리 농어업인!



# 네파 강진 사망자 128명으로 늘어…“사망자 더 증가 전망”

“한밤중 발생해 대응 어려워…통신 끊겨 피해 상황 제대로 파악 안 돼”

네파 북서부 지역을 강타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100명을 넘어서졌다.

4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네파 경찰청은 전날 네파 북서부 카르날리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최소 12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쿠바 카다야트 네파 경찰 대변인은 지진의 진앙인 카르날리주 자자르콧에서 주민 92명이 사망하고 55명이 다쳤으며, 인근 루룸 지역에서도 36명이 사망하고 85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지진이 한밤중에 발생해 사람들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다며 많은 곳에 통신이 끊겨 피해 정도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자르콧 지역의 인구는 19만명으로, 마을들은 산악지역에 산재해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현지 보안 당국은 마을 주민들과 밤새



네파 북서부 카르날리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부상자가 4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무너진 가옥에서 사망자와 부상자를 끌어내는 작업을 했다. 소셜미디어(SNS)에는 현지인들이 어둠 속에도 무너진 집과 건물 잔해를 뒤져 생존자를 구출하는 모습이 올라왔다.

날이 밝자 네파 당국은 구조 헬리콥터를 보내고 지상 보안군을 투입하는 등 구

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지진으로 인한 산사태로 차단된 도로와 등산로를 정리하고 있다.

푸수파 카말 다할 네파 총리는 SNS 액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인명 피해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즉각 구조 작업에 나서도록 관련 기관들에 지시했다. 또 이

날 오전 구조팀과 함께 헬기를 타고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이번 지진은 전날 오후 11시 47분에 네파 수도 카트만두에서 서쪽으로 약 500km가량 떨어진 카르날리주 자자르콧 지역에서 발생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규모는 5.6이며 진원 깊이는 11km다. 상대적으로 얕은 곳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약 500km 떨어진 수도 카트만두는 물론 800km 떨어진 인도 뉴델리에서도 느껴질 정도였다.

네파와 인도 북부는 알프스-히말라야 조산대가 지나는 곳으로 지진이 찾다. 2015년에는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해 약 9천명이 숨지고 건물 약 100만채가 파손됐다. 이 영향으로 수 세기 된 사찰과 역사적 명소 등이 부서지는 등 60억 달러(약 7조8천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 송진영 기자



필리핀 의회서 연설하는 기시다(가운데) 일본 총리

기시다, 필리핀서 중러 겨냥

“국제질서 유지위해 아세안과 협력”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4일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며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도쿄에서 열리는 일본·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지속 가능하고 번영하는 새로운 시대를 함께 만들기 위한 비전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아세안과의 교류 50주년을 기념해 다음 달 16~18일 도쿄에서 아세안 국가들과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전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분단과 격차를 확대했다며 일본도 자금을 출연한 ‘아세안 감염증대책센터’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도쿄에서 열리는 일본·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관련해서는 “지속 가능하고 번영하는 새로운 시대를 함께 만들기 위한 비전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아세안과의 교류 50주년을 기념해 다음 달 16~18일 도쿄에서 아세안 국가들과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전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필리핀에 총 6억엔(약 54억원) 상당의 연안 감시 레이더 5기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 양국 정상은 일본 자위대와 필리핀 군의 상호 과병을 용이하게 하는 ‘상호접근 협정’(RAA·일본명 원활화 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그는 아울러 코로나19가 국제사회의

/ 심현우 기자

## 환경장관, 일본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우려 전달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일본 측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국민 우려를 전달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4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24차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TEMM24)에서 “일본은 과학적·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국제사회에 발표한 계획대로 방류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과 환경에 악영향이 없도록 오염수가 처리돼야 한다”라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공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중국 황운치우 생태환경부 장관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다른 이해관계자 특히 인접국과의 협의”를 요구한 것과

달리, 한 장관은 이웃국의 감시기구 참여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기질 개선과 생물 다양성 보전 등 분야별 협력 방향을 규정한 ‘공동합의문’이 채택되기도 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3국은 올해 6월부터 몽골과 함께 진행 중인 대기질 공동 조사

에 더해 황사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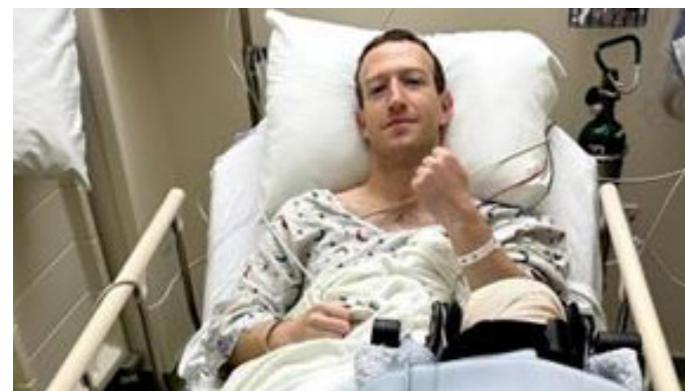
한 장관은 “3국은 인접국으로서 환경영향을 주고받고 있어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황사, 미세먼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등 분야별 협력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찾으려 한다”라고 강조했다.

/ 진성훈 기자

광고 문의 : 1533-1545

## 머스크와 ‘현피’ 예고했던 저커버그, 격투기 연습 중 무릎 부상

“내년초 경기 대비 훈련 중 인대 파열…수술받아”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3일(현지시간) 종합격투기 연습 경기를 하다가 무릎 인대가 파열돼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저커버그는 인스타그램에 “스파링 중에 내 전방십자 인대(ACL)가 찢어져 이를 교체하는 수술을 마치고 방금 나왔다”며 왼쪽 다리에 부목을 하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들을 올렸다.

저커버그는 “내년 초 종합격투기 경기를 위해 훈련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기 시기가) 다소 지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언이 재판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이 같은 명령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처트칸 판사를 “트럼프를 싫어하는 판사”로 묘사했고, 스미스 특별검사실에 대해서는 “폭력배 조직”이라고 표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처트칸 판사의 명령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워싱턴D.C. 연방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에 워싱턴D.C. 연방고등법원은 오는 20일 구두 변론일까지 해당 명령에 대한 일시적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수사를 이끄는 째 스미스 특별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동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 도전과 신용으로 창조한 중동신화 현대자동차그룹이 다시 씁니다

오늘초크로 어려움에 처했던 1970년대, ‘현대’는 불굴의 도전 DNA와 신용으로 중동 붐을 일으켜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 됐습니다.

초대형 신도시 네움시티 등 새롭게 열리는 ‘중동 2.0 시대’, 현대자동차그룹은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도전 헤리티지와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첨단 플랜트 등 신산업으로 다시 한번 ‘중동신화’를 재현하며 경제발전을 위해 대한민국과 함께 하겠습니다.



HYUNDAI  
MOTOR GROUP



(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AVE |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자녀분이  
아직 청년이라면  
꼭 물어보세요

넌 그냥 청년이야?  
**0 청년이야?**

### 0 청년 요금제 😊

데이터 최대 50GB 추가  
매달 1회 커피 & 영화 50% 할인 / 로밍 50% 할인

### 0 청년 더 줌 프로모션 😊

무신사 만 원 쿠폰 / 테더링 데이터 2배  
우티 택시 5천 원 할인 쿠폰 / 100% 당첨 기프트

### 0 day 😊

매달 10일, 20일, 30일마다 더 받는 푸짐한 혜택  
(노티드 / 캐리비안베이 / 써브웨이 / CU & GS25 등)

무신사 및 우티 택시 쿠폰 증정: 6.1~8.31. | 테더링 데이터 2배 프로모션: 6.1~11.30. | 당첨 기프트 프로모션: 6.1~8.31.  
0 청년 요금제 및 0 day 혜택 관련 상세 내용은 T월드 홈페이지 참고 | 0 청년 더 줌 프로모션 관련 자세한 내용은 'www.skt0-event.co.kr'에서 확인해 보세요.

SK telecom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최선을 다한 끝에

시작한 첫 사회생활

바라던 일과 독립도 이루었지만

넉넉하지 않은 월급에

부담이 커던 학자금대출금

하지만 이런 내 부담을 덜어준

농협은행의 신용회복지원으로

더 큰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 나의 희망이 되어준 은행



조특세대리 신용지원  
농어촌 학자금대출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NH농협은행은 한국장학재단과 연계하여 농촌 지역 청년 중  
학자금대출 연체자의 대출상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orld EXPO 2030  
BUSAN, KOREA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NH농협은행이 응원합니다

NH농협은행

## 경동시장서 '루프탑 푸드트럭' 야시장...청년감성에 레트로

11일부터 연말까지 주말에…서울시 “스타벅스·금성전파사와 3대 명소로”

서울시는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매주 금·토·일요일 오후 6~11시 경동시장 신관(청년몰) 옥상에서 '루프탑 푸드트럭 야시장-경동1960'을 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야시장은 MZ세대에게 인기가 많은 '루프탑'과 '푸드트럭'을 합친 것이 특징이다. 푸드트럭 구역에서는 전기구이 통닭과 반미(베트남식 샌드위치) 등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즐길 수 있다.

푸드트럭 10대 중 3대는 현대자동차 후원으로 운영되며 LG전자는 레트로 감성으로 꾸민 '금성전파사 야외 캠핑존'을 마련했다. 문화 구역에서는 레트로 DJ 공연, 버스킹,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토크 버스킹이 진행된다.

전통시장 옥상에 조성된 부설주차장에 서 푸드트럭 야시장이 열리는 것은 서울시 조례 개정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은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공공기



루프탑 푸드트럭 야시장-경동1960

관 소유 시설이나 공영주차장 등으로 한 정돼 주차장이 유하상태여도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없었다. 이에 공영주차장 없이 부설주차장만 있는 많은 전통시장 상인이 불만을 표출해왔다.

지난 1월 경동시장 상인들은 시장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옥상 주차장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고자 했지만 규정

때문에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시는 국무총리실·시의회·동대문구·경동시장 상인 등 여러 주체와 힘을 모아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시는 루프탑 푸드트럭 야시장을 '스타벅스 경동1960', '금성전파사'와 함께 경동시장 3대 명소로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을 끌겠다는 계획이다.

야간시간에 유휴공간으로 방치됐던 시장 내 옥상 주차장을 활용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방문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안전·청소요원을 행사 기간에 상시 배치한다. 또 야시장 방문객 밀집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안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야시장 일정은 우천 시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경동시장 야시장 인스타그램(@1960\_night\_market)을 확인해 달라고 시는 당부했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이번 야시장은 시민에게 인기 있는 루프탑과 푸드트럭을 합친 새로운 야간 즐길거리"라며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통해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민철 기자

## 조선시대 제주 정의현 성읍민속마을서 전통 민속 재연 축제

정의현성 600주년 기념 3~5일, 도축문화·제주목사 행차

성읍1리 마을회와 성읍민속마을보존회는 3~5일 성읍민속마을에서 제29회 성읍민속마을 전통 민속 재연 축제 '600년의 역사 일천년의 미래'를 연다.

축제 첫날에는 도축문화 재현, 공방 체험, 전통 혼례 재연, 표선면민의 날(표선면 동아리 경연대회)이 이어졌다.

도축문화 재현에서는 도새기(돼지)를 잡아 모두 고루 나눌 음식을 장만하는 결혼 잔치 풍습을 선보였다.

둘째 날에는 민속문화 공연, 제주목사 순례 행차, 개막식, 트로트 가수 박서진·요요미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제주목사 순례 행차 행사에는 1702년 제주목사로 부임한 이형상 목사 당시 화첩 '팀리순력' 중 제주목사가 고을을 돌 아보는 모습을 재연하는 것에 의미를 담았다.

마지막 날인 5일에는 도내 청소년 12팀이 참가하는 '묘망진 아이돌' 경연대회, 도내 중장년 동아리 12팀이 참가하는 '잘해 사주 아직은 청춘이여' 경연대회, 취타대연주, 제주민요, 정의현성 600주년 기념 콘퍼런스가 열린다.

정의현은 동쪽으로는 성산읍 시흥리에서 서쪽으로 서귀포시 범동동까지 아우르는 조선시대 행정구역이었다.

성읍1리는 정의현의 중심지였다.

/ 남창희 기자

## 홍성 바비큐 페스티벌 첫날 10만명 운집…한우도 완판

장항선 열차와 고속버스·숙박업소 매진

충남 홍성군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손잡고 개막한 2023 글로벌 바비큐 페스티벌 첫날 인파가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4일 홍성군에 따르면 축제 첫날인 전날 10만30명이 축제장을 찾았다.

외지 관광객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홍성을 지나는 장항선 열차와 고속버스가 매진되고, 숙박업소 예약도 완료됐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축제장에서는 풍자 모양 화덕 10대와 통돼지 바비큐 화덕 5대, 닭 500마리를 동시에 구워낼 수 있는 대형 화덕이 연신 돌아갔는데 바비큐가 나오자마다 동났다.

한우와 한돈을 10~50% 할인 판매하는 홍성 한우&한돈 먹거리존의 판매물량도 완판됐다.

각종 바비큐 시설을 활용해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인 유튜



벼 정육왕·취요남·문촌의 부스도 문전성시를 이뤘다.

조양문 주변에서 중국음식점 운영하는 개신화 대표는 "축제장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관광객들 발길이 주변 식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휴일인 일요일에도 영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장수경 기자

## 검찰, 청주간첩단 재판서 송영길 전 대표 면담 녹취 파일 공개



'北' 지역 받고 스텔스기 도입 반대' 활동가 4명 영장실질심사

검찰이 '청주간첩단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3년 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었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한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청주지법 형사1부(김승주 부장판사) 주재로 지난달 30일 열린 '활동기' 윤모(50)씨 등 4명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2020년 10월 20일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이들이 송 전 대표와 나눈 27

분 분량의 녹음 파일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시했다.

송 전 대표는 피고인들과의 만남에서 "왜 북에서 밤을 요구하나"고 윤씨에게 질문했고, 이에 "구황작물이고 산림도 복원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 다른 피고인인 박 모(59) 씨가 "밤 종자든 묘목이든 많이 보내달라는 (북쪽의) 구체적인 요구도 있었다고 하더라"고

하자, 송 전 대표는 "내가 북측한테 연락

해서 정확하게 이게 자기들의 의도가 맞는지 한번 물어볼게요"라고 했다.

검찰은 3일 "피고인들이 면담 당시 후 송 전 대표와의 대화 요지와 답변 등을 북한 측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의 대화 내용을 북측에 보고한 것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밀 유출"이라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남북 철도사업(동북부선) 추진에 대해서도 "내가 화가 나는 게 대통령(문재인)께서 말씀만 하면 '동북아 철도 공동체', '시베리아 철도 연결'이라고 하면서 강릉~제진 간 100km 공사를 안 했다. 이제야 내년 말 착공이다"라며 "그래서 내가 문 대통령한테 초기부터 하자고 그래도 왜 그리 소극적이었는지"라고 말했다.

이어 "김동연 부총리한테도 이거 예타(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면서 북에다 하라고 그러면 도대체 진정성이 뭐가 있느냐"고 덧붙였다.

/ 이순영 기자



LH 고양사업본부의 뉴홈 홍보관

## 구리갈매·남양주진접2·인천계양

### '뉴홈' 평균경쟁률 8.9대 1

#### 3개지구 사전청약 결과

##### 구리갈매 경쟁률 26.3대 1

지난 10월 구리갈매역세권과 남양주진접2, 인천계양 등 3개 지구에 공급한 '뉴홈'의 사전 청약 최고 경쟁률이 26.3대 1로 나타났다.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달 16~19일 실시한 뉴홈 1천225호(일반형)에 대한 사전청약 접수에 총 1만 954명이 신청, 평균 경쟁률이 8.9대 1을 기록했다.

구리갈매역세권(230호)은 6천41명이 모여 3개 지구 중 가장 높은 26.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남양주진접2(381호)는 1천250명이 신청해 3.3대 1, 인천계양(614호)은 3천663명이 신청, 6.0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정의현은 동쪽으로는 성산읍 시흥리에서 서쪽으로 서귀포시 범동동까지 아우르는 조선시대 행정구역이었다.

정의현은 동쪽으로는 성산읍 시흥리에서 서쪽으로 서귀포시 범동동까지 아우르는 조선시대 행정구역이었다.

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지구별 최고 불입액은 구리갈매역세권 2천120만원, 인천계양 3천150만원이었다.

만원 수준이었으며, 최고 불입액은 구리갈매역세권 3천250만원, 남양주진접2 2천120만원, 인천계양 3천150만원이었다.

일반형 특별공급 당첨 결과를 보면 '다자녀 특별공급'의 지구별 최고 배정 당첨자는 인천계양 95점, 구리갈매역세권 75점, 남양주진접2 70점 순이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의 지구별 최고 배정은 구리갈매역세권, 남양주진접2, 인천계양 모두 12점이었다.

잔여 공급의 경우 구리갈매역세권 및 인천계양(74, 84A형)은 1순위, 남양주진접2 및 인천계양(59A, 59C, 59H, 77A형)은 2순위에서 추첨으로 결정됐다.

구리갈매역세권(230호)은 6천41명이 모여 3개 지구 중 가장 높은 26.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남양주진접2(381호)는 1천250명이 신청해 3.3대 1, 인천계양(614호)은 3천663명이 신청, 6.0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청약저축 총액 당첨선은 평균 1천501

/ 양희진 기자



당신의 초능력이 궁금하다면?



바닷가 시장

생선을 잡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모두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책을 읽으면서 행복해하는 것을 보니  
내가 힘들어도 더 많이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작은 트럭을 어렵게 마련해 ‘달리는 도서관’을 만들고

많은 분들로부터 책을 기증받아  
놀이터, 시장, 바닷가 마을까지  
책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던 것 같아요

앞으로의 소망이 있다면, 제 몸이 허락하는 한  
책이 필요한 더 많은 곳에 찾아가고 싶어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작은 희망들을 KB가 응원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희망부자**

그다섯번째 이야기 ☺



#### KB 작은도서관

KB금융그룹은 모든 아이들이 독서와 함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108곳의 지역에 KB작은도서관을  
조성하였고 2023년까지 전국 8곳에 새로운 도서관을 조성해갑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KB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KB 금융그룹**

## '의암호 참사 순직' 이종우 경감...유족 눈물 속 흉상 제막식

윤희근 경찰청장 “희생정신 기억…순직 경찰관들 지원” 약속

“2020년 8월 6일. 하염없이 폭우가 내리던 그날을 결코 잊지 못합니다.”

잔잔한 내레이션과 함께 화면 속 영상에 고(故) 이종우 경감의 모습이 비치자 유가족들은 그간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이 경감의 추모 흉상 제막식이 열린 3일 유가족들은 고인의 생전 모습이 그대로 담긴 흉상을 하염없이 쓰다듬으며 슬픔을 삼켰다.

이 경감 흉상 위로 갑작스럽게 쏟아진



3일 오후 강원 춘천시 춘천경찰서에서 2023년 경찰영웅으로 선정된 '의암호 순직 경찰영웅' 고(故) 이종우 경감의 추모 흉상 제막식이 열려 유가족들이 흉상을 어루만지고 있다.

기록적인 폭우와 거센 물살에도 불구하고 경찰정 고무보트로 이에 접근했지만, 결국 경찰정마저 전복돼 이 경감은 숨졌다.

이날 제막식에는 이 경감의 어머니와

배우자, 두 아들 등 유가족들과 윤희근 경찰청장, 김준영 강원경찰청장, 박범경 춘천경찰서장 등 경찰 관계자, 강원서부보훈지청장, 강원도경우회장, 춘천경우회장 등이 참석했다.

윤 경찰청장은 “이 경감의 고귀한 희생 정신과 거룩한 뜻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현장에서 소임을 다하다 목숨을 바친 순직 경찰관들의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경찰청장은 “도 경찰청 개청 역사상 처음으로 경찰 영웅으로 선정된 이 경감의 뜻을 이어받아 지역주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와 경찰청은 이 경감의 순직에 1계급 특진과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올해에는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관들의 공모를 받아 이 경감을 ‘2023년 경찰영웅’으로 선정했다.

앞서 2021년에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 경감을 ‘순직 경찰관’으로 인증했다. 이는 이 경감을 포함해 세계 7개 나라 중 단 19명뿐이다.

/ 김민재 기자

## ‘감칠맛 세상’ 제30회 광주 김치 축제·푸드페스타 개막

광주 김치 축제가 서른 살 생일 잔치를 열었다. 광주시는 3일 서구 사무시민공원에서 제30회 광주 김치 축제 개막식을 열고 6일까지 나흘간 일정에 들어갔다.

개막식에는 코미디언 김민경·김원효, ‘먹방 유튜버’ 쪽양 등이 참석해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국민의례, 축사 등 관행을 벗어나 단막극 형식으로 구성돼 눈길을 끌었다.

김치마켓, 우리 동네 김·반·장(김치 반찬 장인)을 찾아라, 주제 전시관, 천인의 밥상 등 프로그램이 행사를 펼쳤다.

천인의 밥상은 14팀이 30여 종류 김치를 활용한 보쌈, 닭강정, 짜조, 소금빵 등을 선보이는 축제 핵심 행사다.

광주김치타운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김치 경연대회에서는 전국 19개 팀이 대통령상을 걸고 경쟁한다. 김·반·장에서는



21개 동네 반찬가게의 솜씨를 맛볼 수 있다. 상무시민공원 일원에서는 육전, 떡갈비, 국밥, 푸드페스타, 빵 등 광주 맛집을 한곳

에 모아놓은 시민참여형 음식 문화축제 ‘푸드 페스타’도 5일까지 함께 열린다.

/ 이영진 기자



미을 유휴공간을 활용해 휴식공간을 조성한 지역 주민들

## 주민이 마을투어 프로그램 개발하고 휴식공간 조성·텃밭 교육도

울산 북구, 주민이 직접 구상하는 마을 도시재생…7개 사업 운영

을 개발해 시범 운영 중이다.

주민을 대상으로 정리수납·여랑강화 교육을 시행한 ‘엄벤져스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 레크리에이션 전문 강사를 육성한 ‘이화정나누미2 팀’도 있었다.

‘이화정 마을관리 환경개선팀’은 마을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했고, 이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지역 아동 식습관 개선을 위한 두부 요리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해봄팀’에서는 마을 텃밭 교육을, ‘엄마의 부캐팀’에서는 육아하는 지역 엄마들의 마음 돌봄을 위한 포토북 제작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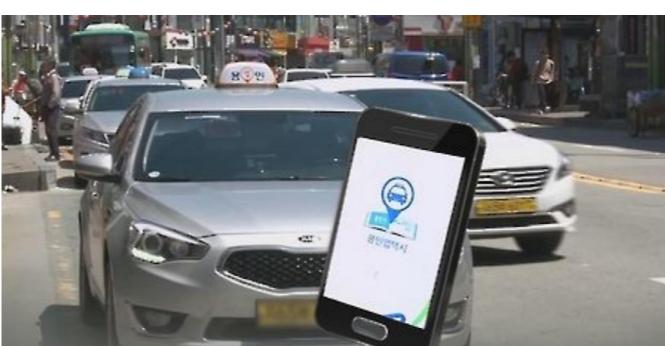
북구에 따르면 이화정마을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에 총 7개 팀이 선정돼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5개월간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먼저 이화정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민들이 행복한 이화정마을 만들기’라는 이름의 사업으로 마을투어 프로그램

/ 권도훈 기자

## 7년간 30억원 투입 택시호출 서비스 ‘용인앱택시’ 이용률 저조

전체 운행 건수 중 해당 앱 이용률 6% 그쳐…실효성 논란 계속



마일리지 지원 사업은 용인시가 앱택시 서비스를 통해 월 40건 이상 호출을 받아 운행한 택시 기사에게 3만~12만원을 지급하고, 단거리(3km)나 심야(21~24시) 운행하면 건당 500원씩을 추가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6년간 기사에게 지급된 마일리지 예산은 15억1천여 만원이다. 마일리지 예산을 포함, 시는 앱택시 사업을 위해 7년 여간 총 29억여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이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용인앱택시 서비스로 이뤄진 호출 건수는 월평균 8만9천여건, 운행 건수는 2만8천여건(배차 성공률 32%)이었다.

같은 기간 택시 운행 건수가 월평균 약 47만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용인앱택시 서비스로 호출에서 운행까지 이어진 것은 전체의 6%에 불과했다.

더구나 이 서비스를 이용해 용인시로부터 마일리지를 지급받은 택시 기사는 관내 등록된 2천14명 중 단 145명(7%)이었다.

이마저도 145명 가운데 4명은 가족이나 단골 승객의 출퇴근 용으로 용인앱택시 서비스를 이용해 호출받은 뒤 미터기를 켜지 않고 불법 운행했다가 시로부터 과태료 20만원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최근 용인시 감사관은 교통건설국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 뒤 해당 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권고하기도 했다.

/ 남유정 기자

## 다시 돌아온 과메기의 계절 주산지 포항서 본격 출하

경북 포항을 대표하는 겨울 별미인 과메기 본격 출하에 들어갔다.

4일 포항시에 따르면 과메기 덕장이 밀집한 남구 구룡포읍 지역의 일교차가 커져 생산 적기에 접어들면서 과메기 가공업체들이 지난달 말부터 본격 출하를 시작했다. 바닷바람에 반쯤 건조되면서 특유의 고소한 맛을 내는 구룡포 과메기는 오메가3, 아스파라긴산, 비타민 등 면역력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위해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통해 일손 확보를 돋고 있다. 시는 과메기 소비 확대를 위해 오는 18~19일 구룡포읍 아라광장 일원에서 제24회 포항 구룡포 과메기 축제’를 개최한다.

/ 신재호 기자

더 즐겁고 안전한 미래 모빌리티, 현대모비스의 전동화 기술이 만듭니다

HYUNDAI  
MOBIS

기부라는 자부심이 커지면  
농부라는 자부심도 커지니까  
고향사랑기부제로 키우세요  
당신의 기부심을, 눈부신 농부심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에 기부하면  
농축산물을 답례품으로 드립니다

광고모델 백종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성희 회장

###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원하는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기부금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

### 고향사랑기부 신청 방법

- > 시행 : 2023년 1월 1일
- 온라인 : 정부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 e음]
  - 오프라인 : 농협은행·농축협
- \*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100%), 10만원 초과분(16.5%)  
\* 기부한도액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법인 기부 불가)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 역대 14번째 PO 5차전 끝장 승부…KT·NC, 5일 수원서 총력전

1, 2차전 내준 kt, 적지에서 2승 거두고 홈 수원 5차전 성사

한국프로야구 플레이오프(PO) 역대 14 번째 '5차전 끝장 승부'가 열린다.

정규시즌을 2위로 마친 kt wiz와 4위 NC 다이노스가 벌이는 2023년 PO는 1~4차전 안에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두 팀은 5일 오후 2시 kt의 홈 수원 케이티워즈파크에서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승부를 벌인다. 1986년 처음 열린 PO는 3 전2승제, 5전3승제, 7전4승제 등 다양한 형태로 열렸다.

5전3승제로 열린 건 올해가 33번째이고, 이번에 14번째 PO 5차전이 성사됐다.

와일드카드 결정전, 준플레이오프, PO 2차전까지 2023년 가을 무대 6연승 행진을 벌이던 NC는 2일과 3일 창원NC파크에서 벌인 PO 3, 4차전에서 연패했다.

홈 수원에서 NC에 연거푸 패한 kt는 적지에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한 팀이 1, 2차전을 내준 5전3승제 PO에서 다른 팀이 3, 4차전을 잡아 5차전까지 승부를 끌고 간 건, 올해가 6번째다.

1, 2차전을 쟁이 한 팀이 한국시리즈(KS)에 오른 건 17번 중 15차례(88.2%)나 된다. 다만 2연패 후 3연승으로 KS에 올



경남 창원NC파크에서 열린 2023 KBO리그 플레이오프(PO) 4차전 kt wiz 대 NC 다이노스 경기

라간 사례는 두 번(11.76%)뿐이다.

1996년 현대 유니콘스가 쌍방울 레이더스를 상대로 '리버스 스윕'에 성공했고, 2009년에는 SK 와이번스(현 SSG 랜더스)

가 두산 베어스에 2패 뒤 3연승을 거뒀다.

kt는 역대 세 번째 'PO 2패 뒤 3연승'

에 도전한다. 1차전에서 5-9, 2차전 2-3으로 패한 kt는 3차전부터 반등에 성공해 3-0(3차전), 11-2(4차전)로 연이어 승리 했다. PO 1~2차전에서 kt의 팀 타격 지표는 타율 0.227, 7득점이었다. 타율 0.243,

12득점의 NC에 밀렸다.

하지만, 4차전이 끝난 현재 kt의 팀 타율은 0.269(21득점)로 올랐고, NC의 팀 타율은 0.204(14득점)로 뚝 떨어졌다.

하위 디순에 배치한 배정대가 13타수 6 안타(타율 0.462), 2홈런, 8타점으로 kt 타선의 뇌관이 됐다.

출전 기회가 많지 않았지만, 오윤석(7 타수 4안타·타율 0.571)은 조커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홈런 2개를 친 문상철(12타수 3안타·타율 0.250), 4차전에서

이번 가을 무대 첫 홈런포를 가능한 황재균(17타수 4안타·타율 0.235)과 장성우

(15타수 3안타·타율 0.333)의 타격감도 상승 곡선을긋고 있다.

반면 NC는 강점인 1~3번의 정교함이 빛을 읽었다. 1번 손아섭(17타수 6안타·타율 0.353)이 분전했지만, 2번 박민우와 3번 박건우가 기회를 이어가지 못했다. 외국인 타자 제이슨 마틴의 14타수 무안타 부진도 빠아프다.

NC는 PO 2차전 4회부터 4차전 7회까지 22이닝 동안 무득점에 그치기도 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부터 PO 2차전까지 NC는 6경기 연속 홈런을 쳤으나, 3차전과 4차전에서는 시원한 타구가 나오지 않았다.

연승을 거둘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체력 문제가 NC 더그아웃을 무겁게 누르고 있다. 하지만, NC에 4일 하루 주어지는 휴식은 재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다.

특히 3일 4차전에 등판하지 않은 불펜의 핵 김영규, 류진욱에게는 4일 이동일을 포함한 이틀 휴식이 매우 달콤하다.

1, 2차전에서 승리한 장소, 수원 케이티워즈파크에서 5차전이 열린다는 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NC도 다시 힘을 낼 수 있다.

/ 최준용 기자



킬리안 음바페와 이강인

### 물오른 이강인, 프랑스 리그1 데뷔골

#### 3경기 연속 공격포인트

이강인, 8점대 평점…3-0 완승

PSG, 5연승으로 리그 1위 등극

한국 축구의 미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데뷔골과 함께 공식전 3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기록하며 물오른 기량을 뽐냈다.

이강인은 4일(한국시간) 오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렌스에서 열린 2023-2024 리그1 11라운드 몽펠리에와 홈 경기 전반 10분 시원한 원발 슈팅으로 리그 1호 골을 쏘아 올렸다.

오른 측면에서 아슈라프 하키미가 낮게 깔아 찬 크로스가 넘어오자, 킬리안 음바페가 이를 뒤로 헤딩해주면서 이강인에게 기회가 왔다.

페널티아크 앞에서 수비 견제 없이 공을 잡은 이강인은 강력한 원발 슈팅으로 골대 상단 구석을 정확히 찔러 1-0을 만들었다. 이는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PSG) 유니폼을 입고 정규리그에서 처음으로 터뜨린 골이다.

이로써 이강인은 공식전 3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작성하며 홈팬들에게 제대로 눈도장을 찍었다. 지난달 29일 브레스트와 10라운드 원정 경기 전반 28분 음바페에게 환상적인 원발 아웃프런트 침투 패스로 1호 어시스트를 기록한 이강인은 바로 다음 경기에서 득점까지 터뜨리며 상승세를 입증했다.

지난달 26일 AC 밀란(이탈리아)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경기에서 3-0을 만드는 PSG 데뷔골을 넣은 데 이어 3경기 연속으로 날

카로운 공격력을 뽐낸 것이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에 따르면 왼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격한 이강인은 47회 패스를 모두 성공하며 패스 성공률 100%를 기록했다.

득점 기회로 연결되는 키 패스도 한 차례 만들었고, 크로스도 팀 내 최다인 10회를 기록하는 등 펼쳤다.

후반 16분 비티냐와 교체돼 그라운드를 떠난 이강인에게 이 매체는 8.19의 높은 평점을 매겼다. 또 다른 통계 매체 풋볼도 그라운드 공 경합을 6차례 이겨내는 등 수비에서도 기여한 이강인에게 8.3을

평점을 줬다. PSG는 후반 13분 2006년 생 신성 웨лен 자이르에메리가 우스만 텨벨레와 2대1 패스 후 페널티지역에서 시원한 오른발 슈팅을 차 2-0을 만들었다.

이어 이강인과 교체된 비티냐도 후반 22분 페널티아크 앞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어 승부에 죄기를 박았다.

이강인, 자이르에메리 등 미드필더진이 맹활약한 PSG는 70%가 넘는 공 점유율을 바탕으로 슈팅 21개, 유효 슈팅 10개를 퍼부으며 3-0 완승을 거뒀다.

PSG는 공식전 5경기 연속으로 3득점 경기를 펼치는 화력으로 5연승을 달리며 상승세를 제대로 탔다.

승점 3을 챙긴 PSG(7승 3무 1패·승점 24)는 한 경기를 덜 치른 OGC니스(6승 4무·승점 22)를 제치고 리그1 선두에 등극 했다. 오는 6일 열리는 니스와 스타드 렌의 경기 결과에 따라 11라운드에서 선두를 탈환할지가 최종 결정된다.

/ 오정민 기자

## 신유빈, 춘잉사에 져 WTT 챔피언스 8강 탈락…한국 선수 전멸



신유빈

신유빈(8위·대한항공)이 세계랭킹 1위 춘잉사(중국)를 넘지 못하고 월드테이블 테니스(WTT) 챔피언스 프랑크푸르트 8 강에서 탈락했다.

신유빈은 3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대회 6일째 여자 단식 8강 톤에서 춘잉사에게 1-3(12-10 5-11 11-9 9-11)으로 아깝게 졌다. 여자 단식 4강 대진은 춘잉사-왕이디(5위·중국), 왕만위-하야타 히나(4위·일본)의 대결로 암축됐다.

다. 남자 단식 8강에서도 임종훈(15위·한국거제소)과 이상수(27위·삼성생명)가 나란히 고배를 들었다.

임종훈은 항저우에서 4관왕을 이루며 중국의 새 에이스로 떠오른 왕추친(2위)에게 0-3(9-11 5-11 10-12)으로 패했다.

이상수는 프랑스 탁구계가 2024 파리 올림픽을 겨냥해 집중 육성해온 르브룅 형제의 둘째인 17세 펠릭스 르브룅에게 2-3(8-11 13-11 11-6 12-14 8-11)으로 졌다. 33세 베테랑 이상수는 비록 4강 문턱을 넘지는 못했지만, 32강전에서 독일의 강자 티모 볼, 16강전에서 중국의 세계 1위 판전동을 꺾는 파란을 일으키며 크게 주목받았다. 이상수는 이번 대회 전까지 볼에게 3전 전패, 판전동에게 14전 전패를 기록 중이었다.

한국 선수들은 7일부터 중국 타이위안에서 열리는 WTT 컨텐더 대회에 출전한다.

/ 권정석 기자

신유빈은 춘잉사와 상대 전적에서 6 전 전패의 절대 열세를 보였다. 8강에 오른 한국 선수들 모두 탈락했다. 2020년 1 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계 귀화 선수 주천희(20위·삼성생명)는 왕만위(3위·중국)에게 2-3(8-11 5-11 12-10 11-9 9-11)으로 아깝게 졌다. 여자 단식 4강 대진은 춘잉사-왕이디(5위·중국), 왕만위-하야타 히나(4위·일본)의 대결로 암축됐다.

한국 선수들은 7일부터 중국 타이위안에서 열리는 WTT 컨텐더 대회에 출전한다.

서울특별시

SH 서울주택도시공사

합리적이니까 | 믿을 수 있으니까 | 튼튼하니까

분양원가 공개

준공도면 공개

후분양제도 강화

공사 자산공개

백년주택에 삽니다  
서울 삽니다



## 남주혁의 다크히어로물 '비질란테'…액션의 타격감·쾌감 농축

자극적 소재·만화적 연출 호불호 요소…유지태, '괴물 형사' 변신

공개를 앞둔 드라마 '비질란테'는 저지른 잘못에 비해 너무나 가벼운 처벌을 받은 이들을 폭력으로 응징하는 김지용(남주혁 분)이 주인공인 다크 히어로물이다.

드라마의 첫 장면은 어린 시절의 김지용이 그의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괴한의 재판을 지켜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괴한은 나약한 어머니를 때리고 살해할 목적이 없었고 반성한다는 등의 이유로 고작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는다.

12년 뒤 20대 청년이 된 김지용은 어머니를 죽였던 남성의 뒤를 밟는데, 전과가 총 18건에 달하는 이 남성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고 다닌다. 지용은 남성에게 망설임 없이 주먹을 휘둘러 처참하게 응징한다.

총망받는 경찰대학 재학생인 김지용은 이후로도 후드를 깊게 눌러쓴 채 솔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난 이들을 응징하는데, 언론이 그의 행적에 주목하면서 사건은 복잡해진다.



방송기자 최미려(김소진)는 김지용이 범죄자를 응징한 여러 사건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다루면서 지용에게 자경단을 뜻하는 '비질란테'라는 별명을 붙인다.

비질란테의 행적이 화제가 되고 그가 실제 존재하는 인물인지 대중이 주목하자 최미려는 비질란테의 관심을 끌기 위해

송방망이 처벌을 받은 흉악범들의 신원을 공개한다.

최미려가 신상을 공개한 아동 성폭행 범 정덕홍은 자신의 집 앞에 군중이 몰려와 비난을 쏟아내자 외국으로 밀항할 것처럼 꾸며 수사에 혼선을 주고 성폭행 사건 피해자를 찾아가 "이게 다 너 때문"이라며 흉기를 휘두르려 한다.

위기의 순간, 김지용이 나타나 정덕홍을 살해한 뒤 유유히 사라진다. 벽에는 정덕홍의 피로 쓴 미안하다는 글과 함께 '천망'(악한 사람을 잡기 위해 하늘에 쳐 놓았다는 그물)이란 두 글자가 남았다.

비질란테가 저지른 살인에 대중은 열광하고 경찰은 범치주의를 무너뜨린 범인을 찾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다. '괴물'로 불리는 광역수사대 팀장 조현(유지태)이 수사를 지휘한다.

설상가상으로 비질란테의 행동을 모방하는 범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비질란테의 사적 응징이 옳은 일인지 논란이 뜨

거워진다.

디즈니+가 오는 8일 공개를 앞둔 범죄 액션 드라마 '비질란테'의 초반부가 3일 언론시사회를 통해 공개됐다. 8부작인 이 드라마는 8일부터 매주 두 회씩 4주에 걸쳐 공개될 예정이며 1~3회가 시사회에서 베일을 벗었다.

'비질란테'는 악역이 무고한 사람을 때리고 괴롭히는 장면 뒤에 그 악역을 주인공이 폭력으로 응징하는 장면을 배치해 시청자에게 쾌감을 주는 히어로물의 전형적인 전개 방식을 따른다.

이야기가 시간 순서대로 선형적으로 펼쳐지고 각 인물이 키는 방향이 뚜렷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점, 사건의 밀도를 높여 이야기가 빠르게 펼쳐지는 점 등 대중적으로 활용받을 만한 요소를 갖췄다. 복싱과 유도 위주의 타격감 높은 액션 장면이 분량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해 시청자는 장르적인 쾌감을 밀도 높게 즐길 수 있다. / 김호성 기자



### 뉴진스 'LoL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 개막 무대 오른다

그룹 뉴진스가 '2023 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결승전 개막 무대를 장식한다.

소속사 어도어와 라이엇게임즈는 "19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결승전 오프닝 세레머니에 뉴진스가 출연한다"고 4일 밝혔다. 롤드컵 결승전은 온라인 생중계 동시 시청자 수가 2021년 기준 최대 7천400만명에 달했을 정도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축제다.

그간 오프닝 무대에는 이매진 드래곤 스나 릴 나스 엑스 등 롤드컵 주제곡을 부른 정상급 아티스트가 출연해왔다.

뉴진스는 올해 오프닝 무대에서 대회 주제곡 'GODS'의 퍼포먼스를 최초 공개 할 예정이다. 당일 롤드컵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 홍은주 기자

## 세계적 강력범죄 추적하는 '슈퍼폴'…“FBI 등 특수요원과 공조”

이용주·장영남·권율 등 출연…“드라마 CSI를 보는 듯한 재미와 생동감”



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진행된 '세계경찰: 슈퍼폴'(이하 '슈퍼폴') 제작발표회에서 신임요원을 맡은 코미디언 이용주는 "코미디언으로서, 방송인으로서 쉽게 경험하지 못할 큰 공동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슈퍼폴'은 출연진이 '슈퍼폴' 한국 지부 요원이라는 설정으로 과거 실제 발생했던 사건의 현장에 출동한 것처럼 연출해 혁지부 요원들과 사건을 공조 수사하는 과정을 담은 6부작 범죄 토크쇼다. 이용주, 배우 장영남, 권율은 한국 지부의 '슈퍼폴 요원'으로서 세계 각국의 전·현직 경찰, 기자들로 구성된 '슈퍼폴 요원'들과 함께 실제 발생한 강력범죄 사건을 파헤친다. 혁지부 형사

와 프로파일러 등 전문가도 자문요원으로 합세해 수사를 돋пуска는다. 이용주는 "제작진분들이 전 세계로 가셔서 직접 취재해오신 만큼 프로그램 규모도 크고, 준비기간도 어마어마하게 길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사건을 수사했던 요원들이 사실을 기반으로 한 증언을 통해 전달하기에 탄 방송이나 어디에도 노출되지 않았던 장면과 이야기들을 볼 수 있다"고 관전 포인트를 짚었다.

프로그램은 '미국판 살인의 추억, 길고비치 연쇄살인' 편을 시작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탄종교 살인사건, 영화 '범죄도시' 현실판인 중국동포 조폭사건, 이탈리아 마피아 대부와 멕시코 마이왕 등을 주제로 다룬다.

'슈퍼폴'은 작전지휘차량을 스튜디오로 구현해 범죄 사건이 벌어진 세계 현지에 직접 출동한 것 같은 느낌을 선사한다. 한국 요원들은 작전 차량 내에서 미 연방수사국(FBI), 미국 마약 단속국(DEA) 등 특수요원으로 이뤄진 세계 요원들과 함께 소통하며 사건을 추적해나간다. 엘리트 요원을 맡은 권율은 "현재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가장 빠르게 시청자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추적해나가는 과정이 스릴있고 현실감 있었던"다고 말했다. / 신재일 기자

박진영, 20일 신곡 '체인지드 맨'



가수 박진영이 20일 1980년대 분위기 가 물씬 느껴지는 신곡 '체인지드 맨'(Changed Man)을 발표한다고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가 3일 밝혔다.

'체인지드 맨'은 박진영이 지난해 11월 '그루브 백'(Groove Back) 이후 약 1년 만에 내놓는 신곡이다. 그가 가장 좋아한다는 1980년대 감성을 담은 신스팝 장르로, '원조 댄싱 퀸' 김완선과 협업한다.

박진영은 공식 SNS 채널에서公開된 콘셉트 사진에서 갈색 재킷을 입고 카메라를 응시하며 1980년대 스타일링과 포즈를 재현했다.

박진영은 다음 달 30~31일 단독 콘서트 '에이티스 나이트'(80's Night)도 연다.

/ 양희진 기자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솔로 앨범 '골든'(GOLDEN)이

발매 5시간 만에 200만장 이상 판매됐다고 4일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밝혔다.

국내 음반 판매량 집계 사이트 한터차트에 따르면 '골든' 판매량은 전날 발매 3시간 만에 100만장, 5시간 만에 200만장

소속사는 "K팝 솔로 가수 음반으로는 사상 최초로 발매 첫날 200만장 이상이 판매됐다"며 "발매 당일 판매량으로 기존 K팝 솔로 가수 발매 첫 주 판매량 1위 기록도 뛰어넘었다"고 설명했다.

'골든'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77개 국가 및 지역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에서도 정상을 차지했다.

타이틀곡 '스탠딩 네스트 투 유'는 그리스, 폴란드, 카타르 등 71개 국가 및 지역에서 아이튠즈 톱 송 차트 1위를 기록했다. 천380장을 기록했다.

/ 박지원 기자

## 더연합타임즈

[www.theuniontimes.co.kr](http://www.theuniontimes.co.kr)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175

편집인 이수진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연희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 광고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갓생을 찾고 있다면 지금 바로 **준대있게**

나는 농업·농촌에서  
**갓생굿작**



식량안보, 미래성장산업화, 새로운 농촌공간 조성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직업으로서의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 어려웠던 엔(¥)테크, 내 편 하나가 생겼다

FX마켓으로 손쉽게 환테크하고,  
하나 밀리언달러 통장으로 스마트하게 사용하면 끝



내 편 손님  
상담센터  
(☎1566-0034)



FX마켓  
원화, 외화 계좌 간 손쉬운 이체가 가능한  
모바일 개인 딜링 서비스



하나 밀리언달러 통장  
해외주식에서 해외결제까지, 최대 10개국의  
통화 예치가 가능한 외화 다통화 입출금 통장



\* [하나 밀리언달러 통장]-가입대상: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예금종류: 외화 입출금 통장-금리: 가입일 당시 홈페이지 고시 통화별 외화보통예금 이율(USD 연 0.01%, 2023.08.11 기준, 세전)-이자는 평균잔액에 대하여 보리, 매년 3,6,9,12월 셋째 주 금요일에 설정되어 적용되는 원금에 기반 \* FX마켓에서 산 외화를 외화현찰로 출금할 경우 현찰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계좌의 암류, 기암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 상품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또는 하나은행 홈페이지(www.hanabank.com)를 참조하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 1599-1111, 1566-0034로 문의 바랍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되며,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야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연금과 소정의 이자율을 합하여 12%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본 홍보물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광고-05582호(2023.08.14) / CC브랜드 230811-0167

하나은행